영어어문교육 제28권 2호 2022년 여름
https://doi.org/10.35828/etak.2022.28.2.101

대학 신입생의 영어학습 양상과 교양영어 수업의 방향성

이영경
(한경대학교)

Lee, Young-Kyoung (2022). Studying the aspects of university freshmen's English learning and the directions of general English class in university.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28*(2), 101-126.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tudy the aspects of university freshmen's English learning for entering university and the directions of General English classes in university. The participants are 334 university freshmen and was divided into two groups: the English class in school-mainly focus group(SG) and the college scholastic ability English test-mainly focus group(CG). The English learning aspects include 1) 'English learning areas that they focused to study in high school', 2) 'English learning methods or ways they highly or most used'. Additionally, the answers of question 3) 'Which English learning areas are the most important in general English class in university?' were studied, too. The results of study show that for the first aspect,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existed between the two groups, even though both groups focused to study 'English reading' the most. Als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ed between the two groups for the second aspect, and English class in SG used 'English class in school' most while 'TV/Internet' was used most by CG. For the third aspect,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didn`t exist between the two groups, but both groups considered 'English conversation' most important in general English classes in university. With these findings, this study can suggest the direction of general English classes which universities can arrange for their freshmen.

[General English classes/aspects of university freshmen's English learning/exploring the directions of general English classes, 교양영어 수업/대학 신입생의 영어학습 양상/교양영어 방향성]

Ⅰ. 서론

지속적인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입학 정원보다 대학 입학 예정자들의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상황이 도래하면서 우수한 신입생을 유치하여 그들이 대학 생활에 적응하고 이탈 없이 학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학생 친화적인 교육환경' 제공의 노력이 사실상 대학 존폐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다(김헌주 & 김경미, 2015). 이와 함께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대면 기반의 실제 대학 수업과 정상적 대학 운영이 어려워진 사태가 장기화 되는 상황에서 자퇴, 반수, 재수 등의 형태로 신입생의 중도 이탈의 비율이 급증하는 현상까지 발생하게 되자 대학의 관심은 그 어느때보다도 대학 신입생에게로 쏠리고 있다(김나혜, 2021; 임정완, 2021). 대학 신입생 시기가 대학 진학 이후 양/질의 대학 생활을 지속하고 종국에는 대학 생활의 성공적 마무리를 결정하는 데 중대한 시기라는 인식의 전환이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한 대학의 민첩한 대응 필요성과 맞물려 대학이 '대학 신입생' 에게 집중하도록 이끈 것이다(박영순, 2018; 이연주 & 임경수, 2021; 홍성연 & 김인수, 2016).

대학의 이러한 관심은 신입생 대상 멘토링 프로그램(김수미 & 정경은, 2013; 이연주 & 임경수, 2021; 이인경 & 김장회, 2011), 신입생 비교과 및 예비 프로그램(손혜숙 & 한승우, 2017; 이승형 & 강기수, 2021; 최미숙, 2022), 신입생 대상 교양수업 (류숙열 & 박혜성, 2016; 정효정, 2019), 신입생 세미나(심고은, 김선영, & 박민규, 2019; 이연정, 2021), 신입생 요구 조사(김헌주 & 김경미, 2015; 류미애 & 정재은, 2020)와 같은 다양한 신입생 대상의 활동 계획을 고찰하거나 그 효과를 분석하여 신입생을 위한 수업의 방향성을 모색, 계획, 운영하려는 많은 움직임의 동력으로 작용했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에서도 우리는 급변하는 세계정세를 반영하고 역동적인 한국 EFL 환경 속 대학 신입생의 영어능력 함양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교양영어 수업의 움직임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과거 교양영어 수업이 수업의 제공자인 교수자 중심의 전통적 독해-문법 강독 수업으로 진행되어 온 반면, 최근에는 수업의 중심이 수업의 수요자인 학습자로 이동되면서, 학습자가 대학 수학에 필요한 기본적인 영어 능력을 갖추는 동시에 다양한 실질적 목표 성취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 영어어학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교양영어 수업의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였다(김영아 & 현일선, 2021; 이예식 & 임홍미, 2005). 또한, 대학 학습자가 현재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사회의 시민으로서 역할 하기 위해 필요한 '글로벌 역량' 을 함양하는 것이 현재 대학의 새로운 과업으로 부각 되면서 교양영어 수업은 모국어와 다른 외국어를 매체로 다른 것을 경험(the experience pf otherness) 하고 이런 경험을 통해 대학 학습자를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시키는 데도 영향을 주게 되었다(Byram, 1997).

이러한 맥락에서 '신입생 전용 교양영어 수업' 개설에 관한 고민은 변화하는 학생과 사회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부응하고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학교

와 학생의 조건과 역량을 극대화 할 특성 있는 교양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텍스트 중심에 한글논문 이름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성명희, 장형지, & 김현진, 2007). 그리고 이러한 '신입생 전용 교양영어 수업' 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업의 대상자인 신입생의 입학 전 '영어학습 양상' 을 사전 분석하는 과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기존의 교양영어 수업 수요자 대상의 다양한 사후 요구 조사 분석 연구(고준석, 2014; 김미혜, 2012; 김성혜 & 임자연, 2013; 김영아 & 현인선, 2021; 김혜경, 2016; 방영주, 2014; 배경진, 2015; 유경애, 2010) 이외에도 대학 입학 전 신입생의 '영어학습 양상' 에 대한 사전조사가 필요한 이유는, 대학 신입생은 자신이 선택한 대학 입학전형-수시와 정시-따라 다르게 요구되는 영어능력-내신영어와 수능영어-기준을 맞추기 위해 전략적으로 영어학습을 진행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이영경, 2018; 한미현 & 배상목, 2015).

현재, 대학 입학전형-수시와 정시-에 따라 주로 반영하는 영어영역은 내신영어와 수능영어로 이분화 되어있다. 수시전형이 반영하는 내신영어는 특정하게 제시된 범위 내 영어 텍스트의 지엽적 내용 분석능력 및 텍스트 내 문법-어휘적 지식을 암기하게 하는 능력을 요구하는 반면, 정시전형이 반영하는 수능영어는 통합교과적 소재의 영어 텍스트의 주제, 맥락의 논리적 흐름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영어의 사고력 측정에 초점을 둔다(도태회, 2005; 박경수, 2007; 박도순, 1992; 이영경, 2018). 이 두 유형이 측정하고자 하는 영어능력의 기준이 명백히 다르기 때문에 학습자가 선택한 전형에 따라 다른 영어학습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을 예상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다. 하지만 이러한 점을 신입생 전용 교양영어 수업계획과 개설에 적극 반영하려는 움직임은 현재까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사회적 요구에 따라 학습자는 각자 전략적/효율적 접근방법을 채택하여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는 반면, 대학은 기존의 방식대로 전체 신입생에게 일괄적, 획일화 된 수업을 적용하는 시대 흐름의 역행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실정에서는 학습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학생 친화적 교양영어 수업환경이 조성되기 힘들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교양영어 수업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면에서, 입학전형에 따라 신입생이 상이한 영어학습 양상을 보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전에 그들의 영어학습 양상을 분석하여 현재의 교양영어 수업의 방향성을 제시하려는 시도가 신입생 대상 교양영어 수업의 성공적 운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믿음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다. 더불어 '교양영어 수업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영역' 에 대한 사전조사를 반영하여 교양영어 수업의 계획성을 고찰하려는 시도는 수업 수요자인 대학 신입생의 실질적 니즈(needs)를 반영한 좀 더 실질적인 영어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학생 친화적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목표는 대학 신입생의 입학전형과 관련하여 내신영어와 수능영어에 중점 정도에 따른 영어학습 양상 및 교양영어 수업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

는 영어 영역의 사전 조사를 통해 현재의 신입생 전용 교양영어 수업의 트렌드-학습자 중심, 영어학습의 실용성 강조, 글로벌 역량 함양-를 잘 반영할 수 있는 신입생 전용 교양 영어 수업의 방향성을 탐구하는데 있다. 영어학습 양상은 구체적으로 내신영어와 수능영어의 중점 정도에 따라 학생들이 가장 노력했던 영어영역과 가장 많이 사용하였던 영어학습 방법/도구로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대학 신입생들의 대학 입학전형과 관련하여 내신영어와 수능영어 중점 정도에 따라 영어학습은 어떠한 양상을 나타낼 것인가?
2. 대학 신입생들이 대학 교양영어에서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영역은 상을 나타날 것인가?
3. 1, 2번의 연구문제 기반으로 대학 교양영어 수업계획에 어떠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내신영어와 수능영어

상급 학교의 진학에 하급 학교의 기록을 반영하는 내신제도에서 내신영어는 지필 고사에 해당하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영어 영역 시험과 말하기, 듣기, 쓰기 등의 영역을 포트폴리오, 구술, 논술 등과 같은 수행평가의 결과를 합하여 등급화 한 성적을 반영한다(권영준, 2016; 성태제, 1998; 심형섭, 2014). 이영경(2018, p. 226)은 내신영어에서 큰 비중을 차지 하는 내신영어 지필 고사의 특징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1) 일정 기간 동안 수업 시간에 배운 영어 학습자료(영어 교과서, 참고서, 유인물 등)내의 영어 텍스트의 내용을 집중적이고 심도 있게 다룸.

2) 주제 추론, 빈칸 채우기, 글의 순서와 삽입, 글의 요약 등과 같은 독해 문제, 영어 텍스트에서 사용된 주요 어휘 문제(단어, 숙어, 반의어, 유의어 등), 영작, 문장 배열, 문법 오류 문장 고르기, 어형 변화 등의 어법 문제 등이 난이도에 따 라 차등적으로 점수가 부과된 문제들이 객관식과 서술형으로 나뉘어 출제됨.

3) 한정된 시험 범위 텍스트 내의 영어 텍스트를 정확히 해석하는 능력과 글의 흐름을 파악하는 능력, 영어 텍스트의 전반적 분석 내용의 이해에 바탕을 둔 암기 능력이 요구.

이영경(2018)은 내신영어 성적의 80% 를 차지하는 영어 지필 고사가 매년 4번 정기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단시간에 해당 기간 동안 배운 내용을 빠르게 학습하고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풀이 기술을 터득하는 것에 중점을 둔 지엽적 접근방법이 내신영어 학습에 선호된다고 언급했다. 즉, 내신제도의 성적 등급 책정을 위해 한정된 시험 범위내의 영어 텍스트를 얼마만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지를 측정하는 내신영어 지필고사의 특징으로 인해 내신영어는 영어 텍스트를 내용상, 문법 상으로 완벽히 분석하고 그 내용을 암기하는 능력을 요구하는 특성을 띄고 있다.

수능에서 평가하는 영어영역은 영어과 교육 과정 성취 기준의 달성 정도와 대학 수학에 필요한 영어 사용 능력을 측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심형섭, 2016).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목적 자체가 대학에서 학습할 수 있는 학업 적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고등학교 교육 과정의 내용(과목)과 수준에 맞춰 여러 교과목에서 공통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소재를 바탕으로 하는 고차적 사고력을 주로 평가한다(박도순, 1992; 박성수, 2007). 그러므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한 영역인 영어 영역은 고등학교 영어과 교육 과정의 내용을 중심으로 통합교과적 소재의 영어지문을 사용한 문제로 구성된다. 말하기, 듣기 평가와 관련되고(17문항) 읽기, 쓰기 능력을 알아보는(28문항) 총 45문항의 객관식 문제를 70분 안에 풀어야 한다. 말하기, 듣기의 문항은 원어민의 대화와 담화를 듣고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 읽기 문항은 대학의 전문 서적을 이해할 수 있는 독해, 어휘, 문법 능력을 측정하며 쓰기 문항은 문장 간의 자연스런 연결이나 문단의 논리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간접적으로 평가한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5).

수능영어의 경우 전체 고등학교 교과과정의 영어 영역 범위를 대상으로 한 번에 치러지는 수능시험의 일부이기 때문에 학기 별로 실시되는 지필 고사를 대비하는 내신영어의 단기적, 지엽적 접근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 수능영어의 범위의 모든 영어 텍스트를 시험 전 꼼꼼히 분석하면서 읽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텍스트의 분석 내용을 암기하는 능력보다는 주어진 텍스트의 주제나 글의 흐름을 빠른 시간 안에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을 요구한다. 즉, 수능영어 영역 평가는 언어에 대한 지식을 암기하는 능력보다는 언어 사용 기능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볼 수 있다(도태회, 2005). 이를 위해 특정 범위에 얽매이지 않고 교과과정 속 영어학습의 4가지 영역－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을 내신영어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장기적이며 종합적으로 다루는 접근 방법이 요구된다.

내신영어와 수능영어가 영어라는 동일한 근간에서 출발하지만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의 다양한 변수로 인해 내신영어와 수능영어에 중점을 두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수시전형 중 내신영어 성적만 반영하는 경우, 수시전형이지만 최저 학력 기준으로 수능영어 성적이 필요한 경우, 정시 전형에 지원하여 수능영어 성적만 필요한 경우, 수시와 정시 전형을 모두 염두 하여 내신영어와 수능영어를 모두 공부하는 상황 등과 같이 다양한 경우의 가능성으

로 인해 내신영어와 수능영어에 어떤 비중을 두고 공부를 하는 지는 학생 개인별로 많은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이다. 심형섭(2016)은 “수능(시험)이 좀 더 객관적인 방향으로 학생을 평가할 수 있는 대규모 선발도구로서의 장점을 가지는 반면 내신(시험)은 장기간에 걸쳐 학생 본연의 학력 수준과 인성을 판단할 수 있는 신뢰성 높은 자료”(p. 117) 라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수능과 내신영어의 다른 방향성은 학생들의 영어학습 양식에 근본적인 차이를 가져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종합해 보면, 대학 신입생들은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여 대학 입학에 있어 유리한 방식-내신 혹은 수능-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에 따라 서로 상이한 영어학습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를 고려하여 신입생의 취약한 영어영역을 보완하고 강점은 더욱 강화시킬 수 있도록 다각화 된 교양영어 수업의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대학 교양영어 수업

1980 년대식 교사 중심의 문법/문학작품의 강독 위주 수업의 교양영어 교육방식이 더 이상 현재의 학생이 배우고자 하는 교육 내용과 방법에 적합하지 않다는 문제제기는 학령인구의 감소라는 시대적 현상과 결합되어 교양영어 교육의 패러다임이 ‘실용성 중심’ 과 ‘학습자 중심’ 으로 변화하도록 이끌었다(김헌주 & 김경미, 2015; 이예식 & 임홍미, 2005).

교양영어 수업의 내용은 문학 작품이나 철학 에세이의 문법 번역식 방법으로 해석하는 강독(독해)위주의 수업에서, 기본적 4 skill (말하기, 읽기, 쓰기, 듣기) 능력 및 대학 수학(전공 공부)과 대학 졸업 이후의 과업 목표 달성 -취업, 유학, 영어 공인 인증 평가 대비 등- 에 필요한 독해력, 문법/어휘 지식, 문제풀이 능력 함양에 실질적인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실용성’ 이 강조되어 왔다(김영아 & 현일선 2021; 이영경, 2018; 이예식 & 임홍미, 2005). 수업의 방법적 측면에서도 원어민 수업 확대, 영어 전용 강의실 수업 증가, 특성화 영어(스크린 영어 등), 실무 영어, 전공 영어 위주, 공인영어인증 평가 대비 수업 등의 교과 확대, 영어 수준별 교과 과정 적용, 사이버 영어교육, 온라인 활동, 멀티미디어 활용과 같은 세부적이면서도 실용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이예식 & 임홍미, 2005).

이러한 실용성의 강조는 수업의 중심이 교수자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변화한 사실과도 접점이 있다. 구성주의 교육에서는 학습자를 교수자로부터 지식을 수직적/수동적으로 전수받는 입장에서 촉진자(facilitator)인 교수자의 도움으로 스스로 지식을 구성할 수 있는 능동적 주체로 인식한다(안동현, 2013). 구성주의 교육개념에서는 현 사회가 대학생들에게 요구하는 영어 지식이 일률/대량적으로 교수자에게 전수되기 보다는 개별 학습자들이 가진 각기 다른 인지능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변화에 잘 적응하는 창의적인 능력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교양영어의 수업은 이러한 구성주의의 이상적 학습자의 모습을 잘 구현하는데 도움이 되는 실용성이 강조된 수업 활동을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업과 관련된 많은 부분이 자연스럽게 '학습자' 에게로 집중되는 환경 조성에 초점을 두게 된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과 더불어 사회 구조의 빠른 변화 역시 대학의 교양영어 수업이 학습자에게 관심을 두도록 이끌고 있다. 출생률의 급격한 감소로 학령인구가 대폭 감소하게 되면서 대학이 우수한 학생의 진학률을 높이기 위한 교육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김헌주 & 김경미, 2021). 이전의 교양영어 수업이나 커리큘럼은 학습자에 대한 고려보다는 운영자나 교수자 직관에 의존해 운영되어 왔던 게 사실이다(고명희, 2010). 학령인구의 현저한 감소와 코로나-19로 인한 대학 중도 이탈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교양영어 수업 학습자의 영어학습의 면면이나 수업에 대한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 교양영어 수업은 신입생의 대학 환경의 적응 뿐 만이 아니라 현재의 영어학습이 추구하는 트렌드를 반영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양영어 수업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원하는 학습내용과 학습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결정하는 것이 교양영어 수업계획에 선행되어야 한다는 고명희(2010)의 언급은 뜻하는 바가 크다. 즉, 현 상황에 맞는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교양영어 수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영어학습에 대한 분석 및 학습자가 수업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에 관한 정보수집이 수업계획에 있어 필수 선행 요건인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반영하듯 최근, 교양영어 수업과 관련된 많은 연구는, 교양영어 수업의 효과를 학습자의 특정 영어학습 능력(독해력 등)의 향상 여부로 분석하거나(김영아 & 현일선, 2021), 자기 효능감과 같은 정서적(affective) 측면을 분석하고(박옥희, 2021; 신영헌 & 현일선, 2020), 교양영어 수업 이후 수업에 관한 학습자의 의견, 감정 및 요구를 분석하여 추후 교양영어 수업이 고려해야 할 점을 고찰(김미숙, 2016; 김미선 & 김영미, 2017; 김지은 & 최용훈, 2019)하는 등의 교양영어 수업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변화-실용성 강조와 학습자 중심-와 더불어 대학 학습자를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화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글로벌 역량(global competence)' 의 강화가 현재 교양영어 수업의 새로운 당면과제로 부각하고 있다(김영아, 2021; 주미란, 2021).

글로벌 역량은 상호 문화적 능력, 글로벌 시민의식, 상호 문화적 감수성, 세계적 사고 등 학자에 따라 정의나 표현에 차이가 있지만, 국경의 의미가 없는 세계 사회의 구성원으로 세계 시민이 가져야 하는 인간의 보편적 권리와 책임, 다양성에 대한 존중 등을 추구하는 능력을 내포하고 있다(김영아, 2021; Tawail, 2013). 김영아(2021)는 Hunter, Whited 와 Godbey(2006)의 말을 빌려 글로벌 역량은 '지식' (상호 문화적 상호작용을 위한 자문화 및 타 문화에 대한 배경지식), '기술' (상호 문화적 환경에서 상호작용을 가능케 하는 언어적, 문화적 기술),

‘태도’ (문화적 차이에 대한 학습자의 열린 자세와 다양성 포용 및 참여의지)의 영역을 내포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교양영어 수업은 ‘기술’ 측면에서 다른 세계 시민과 원활히 의사 소통할 수 있는 영어구사능력 함양을 기본적 학습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타 문화, 글로벌 이슈 등의 내용을 주로 담고 있는 교재나 텍스트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는 자연스럽게 다른 세계 시민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배경지식’ 을 습득할 수 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다른 문화에 대한 긍정적 ‘태도’ 까지도 함양할 수 있게 된다. 즉, 교양영어 수업은 외국어로 영어교육을 근간으로, 모국어와 외국어(영어)를 매체로 하여 ‘서로 다른 것을 경험(the experience pf otherness)’ 하게 되며 이러한 경험은 학습자가 총체적 측면에서 지식, 기술, 태도를 겸비한 ‘글로벌 시민’ 으로 성장하는데 매우 도움이 되는 것이다(김영아 & 현일선, 2021; Byram, 1997). 이혜원(2019)은 교양영어 수업이 영어 읽기, 쓰기와 같은 인지적 능력과 함께 다양한 글로벌 이슈를 영어로 이해해 가는 과정에서 영어 사고력 및 지구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다른 문화와의 상호 연결성 및 상호 의존성, 다양성, 인권, 평화, 지속 가능성과 같은 사회, 정서적, 인성적 측면의 비인지적 역량까지도 함양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더 나아가, 이혜원(2019)은 학습과정에서 학습자 스스로 다양하게 제기되는 글로벌 이슈의 문제를 인식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스스로 고안할 수 있는 메타 인지적 역량까지도 교양영어 수업이 다루는 다양한 수업 활동을 통해 습득이 가능하기에 교양영어 수업은 글로벌 역량 강화에 있어 인지, 비인지, 메타 인지적 영역의 균형 잡힌 능력향상을 도모 할 수 있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고 또 그 변화가 더욱 가속화 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학습자에 중심을 두고, 내용과 방식에 실용성이 강조되는 동시에 학습자의 글로벌 역량 함양에도 초점을 두는 현재의 교양영어수업의 모습은 빠른 사회의 변화에 대처하고자 하는 대학의 자구책인 동시에 학습자가 세계시민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수 있도록 성장시키는 교육적 목표가 반영된 것이라고 하겠다.

3. 대학 교양 영어 수업과 대학 신입생

교양영어 수업과 ‘대학 신입생’ 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의 시도는 양적으로 많지 않다. 하지만 앞서 지적한 대로 빠르게 변화하는 한국의 EFL 환경의 역동성을 반영하기 위해 교양영어 수업의 구조적/내용적 변화는 불가피하다. 대학에서의 첫 해가 대학교육의 효과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만큼 결정적 시기(유슬아, 2011)라는 인식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기에 앞으로 신입생 대상의 교양영어 수업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입생 대상의 교양영어 수업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아래와 같다.

최경미와 양우석(2011)은 지방 소재 대학의 이공계 신입생을 대상으로 영어 수준별 수업을 실시하고 운영방식을 소개했다. 수준별 수업의 준비단계는 진단

된 신입생의 수준을 자동적으로 나누어 줄 웹 프로그램의 자체 개발부터 시작하였다. 이후 진단평가가 실시되고 웹 프로그램으로 성적을 산출하여 상급과 중급반으로 나누어 수업을 진행하였고 이후 상급반과 중급반을 공동대상으로 하여 실시되는 기말고사를 실시하고 성적을 산출하는 과정들이 진행되었다. 연구자들은 수준별 수업을 진행할 경우 수준에 맞는 강의 개발 및 영어능력 향상, 신입생 대상 교양영어 시간표의 체계적 정비, 외국인 영어 강사의 관리가 용이하다는 이점을 언급했다. 연구자들은 수준별 수업의 개설이 일회에 그치지 않고 기존 이공계 교과과정과 학사과정 및 학칙과의 조율,수정을 통해 이공계 교과과정에 체계적으로 자리 잡아 안정적, 장기적으로 이공계 신입생의 영어능력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음을 피력했다.

김영아와 현일선(2021)은 서울 소재 대학의 필수교양 수업에 참여한 신입생 67명을 대상으로 글로벌 역량- 교양영어 융합수업이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인식 및 영어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사전평가로 미리 초/중/고급 수준으로 나누어진 학생들은 글로벌 역량 함량이 학습의 목표로 명시된 교양영어 융합수업에서 어휘, 문법, 독해, 글쓰기를 학습하였다. 연구자들이 개발한 글로벌 역량 평가 자기 보고식 설문을 사전에 이용한 후, 사후에는 융합수업이 학습자의 어휘, 독해, 작문 능력, 글로벌 이슈와 문화에 관심/이해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의 자기인식을 묻는 질문과 글로벌 역량-교양영어 융합수업에 바라는 점에 무엇인지의 질문이 추가되었다. 연구결과, 융합 수업은 학습자들의 글로벌 역량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진 않았지만 영어 수준과 무관하게 수업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확인하였다. 연구자들은 학습자가 글로벌 역량-교양영어 융합수업에 바라는 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학생의 관심과 흥미에 부합하는 글로벌 이슈와 문화를 융합할 수 있는 구체적 커리큘럼 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황요한과 고보라(2019)는 지방소재 대학의 신입생 1554명을 대상으로 교양필수영어 교과목 수업(토익 읽기와 듣기)에 블랜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을 적용하여 토익영어성적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1학기 수업의 토익 성적으로 기초반과 중급반으로 나누어진 학생들은 2학기부터 액티브 러닝과 조별활동을 진행하는 강의실 수업과 10주간 1주일에 4시간 토익 교재의 내용을 온라인 토익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문제를 푸는 블랜디드 러닝 방식의 수업을 수강하였다. 연구결과 블랜디드 러닝이 실시되지 않은 1학기 토익 성적과 비교하여 2학기 성적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상승했고 블랜디드 러닝은 중급반 보다는 기초반의 성적향상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 또한, 온라인 프로그램을 80% 이상 수강한 학생들의 성취도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블랜디드 러닝의 장점을 확인하고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다양한 혼합수업 모델의 개발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 외에도 교양영어 수업과 신입생의 정서적 측면의 관계성을 고찰한 연구들도 있다. 박옥희(2021)는 원어민과 한국인 교수의 팀티칭으로 진행되는 의사소

통 활동 위주의 수준별 교양영어 수업에 참여한 327명의 신입생을 대상으로 학습 감정을 분석하였다. 학습감정검사지를 통해 조사한 결과, 영어 수준에 따라 영어학습 감정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상급반이 초/중급반 보다 걱정과 지루함을 더 많이 느꼈다. 원어민과 한국어 교수에 따라서도 영어학습감정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원어민 교수의 수업이 더 재미있고, 만족스럽고 덜 지루함을 느꼈다. 의사소통활동의 유형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게임이 제일 재미있고 만족스러운 반면, 발표하기에 가장 높은 걱정과 지루함이 나타냈다.

신영헌과 현일선(2020)은 영어 독해와 작문 중심의 교양영어 프로그램의 중급반을 수강하는 신입생 189명을 대상으로 수업이 신입생의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수업의 사전/사후에 실시된 자기 효능감 설문을 분석결과, 22개의 영역으로 이루어진 자기 효능감 문항 중 '끈기력' 을 제외한 모든 영역이 사전조사 때에 비해 상승하여 수업이 신입생들의 자기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였다. 독해 능력, 영작, 이해력, 문장 구조와 어순 파악, 문단 구성, 문법 수정, 번역기 없이 가능한 자신감 등이 작문 중심의 수업 이후 유의미하게 상승하였다. 연구자는 영작 위주 교양영어 프로그램이 영작 경험이 부족한 신입생에게 영작의 기회와 함께 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또한, 교수자의 영작 지도 운영 방식에 따라 자기 효능감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결과를 통해 성공적인 영작경험을 고취시킬 수 있게 학습자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영작 활동개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영아(2021)는 서울소재 대학 교양필수 영어수업을 수강 중인 신입생 361명의 글로벌 역량과 영어 학습 동기의 상관관계를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영어학습 동기와 글로벌 역량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연구자는 이러한 결과를 영어학습 동기가 높아지면 글로벌 역량에도 긍정적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구체적으로 신입생의 영어학습 동기의 하위 영역의 평균은 도구적>통합적>내재적>외재적 영역 순으로 나타났으며 네 가지 영역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태도, 기술, 지식의 하위영역으로 측정한 글로벌 역량의 경우 태도와 기술의 평균이 동일하게 나타난 반면 지식이 저조한 평균을 보였다. 연구자는 신입생들이 타 문화와 다양성에 열린 태도, 상호작용의 의지와 자신감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이를 위해 요구되는 배경지식은 아직 부족하다고 신입생들이 스스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대학 신입생' 과 '교양영어 수업' 이라는 두 가지의 접점을 가진 위의 연구들은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졌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고 그 속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역량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해 교양영어 수업의 관심이 자연스럽게 신입생에게로 향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대학 신입생의 구체적/실제적 영어학습의 양상을 사전에 분석, 신입생 전용 교양영어 수업의 방향성을 고찰하고 수업 계획 운영에 적용될 수 있는 기초적, 실제적, 실용적 신입생 영어학습 관련 정보를 탐색 하고자 하는 연구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 이러한 연구의 부재를 인지하여 앞으로의 교양영어 수업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려는 본 연구의 시도는 교양영어 수업의 질적 발전에 조금이나마 긍정적 힘을 실어 줄 것으로 보인다.

4. 교양 영어 수업의 방향성

현재까지 다수의 교양 영어 수업 방향에 관한 연구들은 기존의 특정 대학(고준석, 2014; 김미혜, 2012; 김혜경, 2016; 방영주, 2014; 배경진, 2015)이나 다수 대학(김성혜 & 임자연, 2013; 유경애, 2010)의 전 학년/특정 계열/계열 불문 대상의 교양 영어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을 분석, 문제점 진단하는 데 초점을 두고 그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점을 제안하는 형태로 교양영어 수업의 방향이 제시된 사후 운영 보고서 적 특징을 나타냈다. 그 이외에는 교양영어 수업의 다양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직접적, 중점적으로 영어 수업에 관한 요구를 조사하여 방향성을 제시한 연구들이 다수 나타났다. 그 중 몇 가지 언급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김미숙(2016)은 대학생 202명과 앞으로 교양영어 수업을 듣게 될 고등학생 187명 대상으로 대학 교양영어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 요구를 조사하였다. 고등학생 학습자는 영어권 문화 이해와 언어 실력 향상을 이상적 교양영어 목표로 여기며 영어권 문화와 전통, 역사들의 주제를 교양영어에서 다루기를 원했다. 대학생들은 언어실력 향상을 교양영어의 목표로 삼고 일반 상식을 교양영어 수업의 선호 주제로 꼽았다. 하지만 두 그룹 모두 교양영어 수업은 말하기 중점 수업을 선호했으며 영어토론을 희망하는 학습 활동으로 원했으며 영화, 드라마와 같은 미디어 영어를 관심 있는 교양영어 수업으로 선택했다. 연구자는 학습자들이 표현 기능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영어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활동과 프로그램들이 교양영어 교과과정 개편 및 개발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미숙과 김영미(2017)는 비 원어민 영어 교사, 원어민 영어 교사, 수업을 수강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 교양 영어 프로그램 인식 요구를 조사,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조사 결과 참여자 모두 대학 교양영어 프로그램의 학습 목표는 의사소통 능력 향상이며 이를 위해 4년제 대학 재학 기간에 적어도 4학기 이상 '기초 대인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을 위한 수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대학 교양 영어 프로그램은 다른 세계 문화 경험과 함께 영어능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는 컨텐츠가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했다.

김지은과 최용훈(2019)은 사범대학 영어교육학과 재학생들 대상으로 교양영어 인식과 요구를 조사하였다. 교양 영어 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3점대로 높지 않았고 수준별 수업을 원하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많았다. 수업 시설, 교수진의 전문성, 교수 방법 등의 요소는 타 항목과 비교, 만족도가 높았지만

영어실력 향상 정도와 흥미 유발 정도의 만족도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전공과 연계된 교양영어 선택 과목 및 전공과 관련된 회화, 의사소통 중심의 교양 독해 수업 개발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교양영어 수업 학습자의 요구 분석 결과에 따라 교양영어 수업의 방향성을 제시한 다수의 연구들을 종합한 김상수(2009)의 연구에서는 교양영어 전담 시스템 및 전담 교원 확보, 영어 능력 인증제, 필수 학점의 상향 조정, 온라인 수업 시설 확충과 같은 제도/시설적 측면과 수준별 수업, 몰입식 영어 프로그램, 협동학습, 전략 중심적 학습, 특수목적영어 교과 도입과 같은 교수학습 방법과 관련된 실질적 개선 방안들이 공통적으로 제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실용적, 실질적 영어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여 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들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 이외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교양영어수업의 방향성과 어느 정도의 관련성을 나타낸 연구는 앞에서 언급된 김영아와 현일선(2021), 김영아(2021)의 연구이다. 김영아와 현일선(2021)은 글로벌 역량-교양영어 융합수업에 참석한 신입생들이 수업에 바라는 점을 개방형 질문으로 제시하고 답변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습자의 삶과 직접적 관련성, 타 문화, 현재의 글로벌 이슈, 다양한 미디어(팝송, K-pop, 뮤지컬, 영화 등)와 대중문화등을 내용으로 하며, 전통적/기본적 영어 기술(문법, 어휘, 토익 기초, 발음법, 영어쓰기 기술 등) 및 실질적 의사소통 능력(회화와 말하기 등) 습득 등의 답변이 나타났다. 이를 기반으로 연구자들은 영어능력 신장과 글로벌 역량 함양의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교수법과 커리큘럼, 글로벌 이슈와 문화관련 수업 자료의 개발이 필요하며 다른 강좌들과 협력하여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공통작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쪽으로 교양영어 수업이 나가야 함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해당 교양영어 수업이나 특정 교양영어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에 실시된 학습자의 요구 분석의 결과를 중심으로 사후 수업계획이나 프로그램의 개선 혹은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학습자의 실제 영어학습 양상과 영어학습 인식 조사를 추가하여 교양영어 수업의 방향을 모색해 하는 것은 사후 요구 분석에서 파악하기 힘들지만 실제 수업과정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영어 학습 관련 정보를 습득, 실제 수업 계획에 적용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학습자가 교양영어 수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큰 영어 학습 양상의 조사를 통해 교양영어 수업 방향을 조명하는 교양영어 수요자 중심의 연구 시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대학 학습 환경에 첫 발을 내딛는 신입생 대상 교양영어 수업의 경우 신입생들의 대학 입학 전 영어학습 양상이 수업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기에 학습자들의 영어학습 양상과 영어학습 인식을 조사하여 신입생 전용 교양영어 수업 계획에 참고하는 것이 실질적인 교양영어 수업의 학습 효과를 향상 시키고 학습자들의 수업 참여도를 높이는데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Ⅲ. 연구방법

1.연구 대상과 도구

본 연구의 대상은 충남 소재 모 종합대학의 필수 교양영어 수업 '대학 영어'(2학점)에 참석한 신입생 334명(여성 175명, 남성 159명)이다. 대학 교양영어 수업의 경험이 학생들의 영어학습 양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3월 첫째 주 수업 시작 전에 설문을 실시하였다. 실험에 참여한 신입생들은 대학수학능력 시험의 결과로 대학에 입학하는 정시 전형과 고교 교과 과목 및 학교생활 기록부를 기반으로 입학하는 수시 전형 중 하나의 방법을 통해 입학하였다. 자신이 선택한 전형 방법과 입학 변수에 따라 중점을 둔 영어 학습 영역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표 1 에서 보듯 내신영어 에 중점을 둔 학생들은 총 164명, 수능영어 에 중점을 둔 학생들은 170명으로 나타났다.

표 1
실험 참가자 분석 (단위:*n*)

<table>
<tr><td colspan="2"></td><td>내신영어(164)</td><td>수능영어(170)</td></tr>
<tr><td colspan="2">정시(135)</td><td>17</td><td>118</td></tr>
<tr><td colspan="2">수시(199)</td><td rowspan="4">147</td><td rowspan="4">52</td></tr>
<tr><td colspan="2">수능 응시(176)</td></tr>
<tr><td>최저학력기준 충족</td><td>경험 삼아</td></tr>
<tr><td>110</td><td>66</td></tr>
</table>

수시전형에 지원한 학생(199명) 중 수능에 지원한 학생(176명)들은 최저학력기준 준수(110명)와 경험 삼아(66명) 수능에 응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능영어에 중점을 둔 학생들이 근소하게 더 많았던 것은 수시전형이라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의 결과로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과 같은 요인들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 연구 절차와 분석방법

본 연구는 대학 신입생의 대학 입학 전 내신영어와 수능영어의 중점 정도에 따른 영어학습 양상을 '노력했던 영어학습 영역' 과 '영어학습 방법 및 도구'의 사용 양상으로 조사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대학 교양영어 수업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영어 영역에 대한 답변과 함께 교양 수업 계획의 수립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본격적인 교양영어 수업이 시

작하기 전 첫 수업에서 설문을 실시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총 3개의 반 344명을 대상으로 수업 시작 전 설문에 대한 취지와 목적을 간단히 설명한 후 설문에 집중력을 가지고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설문의 배포와 주의사항 설명 및 설문지 수거 및 연구결과 분석의 순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대학 입학 전 '노력했던 영어학습 영역' 은 문법, 어휘, 독해, 회화(말하기와 듣기), 쓰기의 총 5개 영역으로 나누어 한 개를 선택하도록 했다. '영어 학습방법 혹은 도구 사용' 은 TV 나 인터넷 방송, 학교 영어수업, 과외, 학원, 기타(언급된 이외의 방법이나 도구의 경우 직접 작성)에서 선택하도록 하였다. 대학 교양영어수업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영어 영역은 문법, 어휘, 독해, 회화, 쓰기의 총 5개 영역 중 한 개를 선택하게 하였다. 더불어 선택 사항으로 대학 교양영어수업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영어 영역의 선택 이유를 간단하게 서술하게 하였다.

설문조사 후 정량적 자료 분석을 위해 IBM SPSS Statistics 2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내신영어와 수능영어 중점 정도와 문법, 어휘, 독해, 회화, 쓰기 중 대학 교양영어 수업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영어 영역의 측정은 빈도 분석, 내신영어와 수능영어 중점 정도에 따른 노력 영역과 영어학습 방법 및 도구 사용의 차이를 조사하기 위해 교차 분석과 일원분산분석(ANOVA) 실시하였다. '대학 교양영어 수업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영어 영역' 에 대한 서술형 답변은 내용을 대변하는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응답을 축소, 분석하였다.

Ⅵ. 연구결과

1.내신/수능영어 중점 정도별 '노력했던 영어학습 영역'

내신과 수능영어의 중점 정도에 따른 노력했던 영어학습 영역의 분석 결과는 표 2 에서 살펴볼 수 있다. 전체 응답자 334 명을 기준, 가장 많은 응답자(62%, 207명)가 독해 영역에 노력을 중점 하여 학습했고 어휘(19.2%)와 문법(16.8%)이 그 뒤를 따랐다. 내신영어와 수능영어 시험 모두 읽고 푸는 독해 문제에 비중이 다른 영역 보다 높다는 사실이 전체 응답자의 2/3가 넘는 학습자가 독해 능력 향상에 직/간접적 영향을 주는 영역을 고른 것으로 보인다. 회화(1.8%)와 쓰기(0.3%)에 응답 비율은 앞 선 세 영역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내신영어와 수능영어에서 영어회화와 쓰기능력을 성적에 반영하는 비율이 독해에 비해 낮기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전략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내신영어와 수능영어 중점 집단별로 '노력했던 영어학습 영역' 을 분석한 결과 두 집단 사이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내신영어 중점 집단 응답자의 절반 이상(58.5%)이 독해 영역에 노력을 기울인다고 응답했으며 문법(20.1%), 어휘(17.1%), 회화(2.9%), 쓰기(0.6%) 영역 순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수

능영어 중점 집단 응답자 역시 독해(65.3%)에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고 응답했으며 어휘(21.2%), 문법(13.5%)이 그 뒤를 따랐고 회화, 쓰기에 중점을 두는 응답자는 없었다.

표 2
내신/수능영어 중점 정도 별 노력했던 영어학습 영역

		노력했던 영어 학습 영역					χ^2 (p)	f	p
		문법	어휘	독해	회화	쓰기			
내신영어 (*n* = 164)	*n*	33	28	96	6	1	10.768* (.000*)	2.740	0.029
	%	20.1	17.1	58.5	2.9	0.6			
수능영어 (*n* =170)	*n*	23	36	111	0	0			
	%	13.5	21.2	65.3	0	0			
전체(*n* = 334)		56	64	207	6	1			
백분율(%)		16.8	19.2	62	1.8	0.3			

*p < .05

두 중점 집단 사이의 유의미한 차이의 결과를 살펴본다면 먼저, 두 집단이 모두 독해 영역에 노력을 가장 많이 한다고 응답한 반면 그 비중에서 내신영어 집단 보다 수능영어 집단이 다소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내신영어 집단의 독해 영역 다음으로 문법-어휘 순으로 노력을 기울인 것에 비해 수능 집단은 어휘-문법 순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간 이러한 세부적 차이는 내신영어와 수능영어의 시험의 특성과 관련성을 짐작할 수 있다.

내신영어에서는 학기마다 시행되는 정규 고사 시험에 따라 시험 범위가 제한적, 선택적 성격을 띄며 그 범위 내에서 출제 될 수 있는 시험 문항의 종류 및 비중도 자유롭게 조절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독해 문제의 비중이 높지만 한정된 시험 범위의 내용과 관련된 지엽적 성격의 문법, 어휘 문제들도 다수 출제되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다양한 시험 문항들에 대비해야 한다(이영경, 2018). 즉, 독해 영역 뿐 만이 아니라 문법과 어휘 영역 쪽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이다. 이에 반해 수능영어 시험은 전체 45문항 중 듣기 문제 17문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28개의 문항이 모두 읽고 푸는 형태이며 (간접 쓰기 능력 측정을 위한 읽기 문항 7개 포함) 이 중 문법(2문항), 어휘(1문항)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이 총 3개로 고정되어 있다. 또한, 이 문제들은 문법 지식의 단순암기보다는 문단의 맥락적 의미에 부합하는 문법 사항의 적절성과 어휘의 사전적 지식보다는 글의 전체적 흐름과 맞고 문맥을 활용하여 어휘의 의미를 유추하는 능력을 측정을 위한 문항이기 때문에 또 다른 형태의 독해 문제라고 볼 수 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5). 그로 인해 수능영어 중점 집단의 응답자들은 독해 영역에 상당히 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독해 능력 향상과 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어휘 쪽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즉, 내신과 수능영어의 영어 시험의 특징에 따라 학습자들이 나름대로의 학습전략을 세워 노력을 투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회화와 쓰기 영역의 고립화이다. 회화와 쓰기에 노력을 기울인다는 응답은 내신 영어 집단 에서는 전체 3%에 그쳤고 수능영어 중점 집단에서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미비한 수준이지만 내신영어 중점 집단에서 소수의 응답자들이 회화와 쓰기에 중점을 둔다고 응답한 것은 성적에 반영되는 내신영어의 수행평가가 회화(말하기, 듣기), 쓰기 활동을 포함하는 경우를 염두 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수능영어에서 직접 듣기 능력(12문항)과 간접적 말하기 능력(5문항)을 측정하는 문항이 17문항 이나 있고 간접적 쓰기 능력(읽고 푸는 문제 형태)을 측정하는 문항도 7문항 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화와 쓰기에 노력을 집중한다는 응답자가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학습자들이 인식하는 회화와 쓰기 영역과 수능영어에서 해당 영역의 능력을 측정하려는 의도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즉, 회화/쓰기 능력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수능시험에서 해당 영역의 향상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고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의미 있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 신입생들이 자신의 영어 학습 환경과 상황에 민감하게 인식, 반응하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별, 채택하여 영어학습에 노력을 기울이는 전략적 학습자일 가능성을 염두하여 교양영어 수업을 계획 할 필요성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2. 내신/수능영어 중점 정도별 ‘사용한 영어학습 도구 및 방법’

내신과 수능영어의 중점 정도에 따른 ‘사용한 영어학습 도구 및 방법’ 의 분석 결과는 표 3 에서 살펴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는 학교 수업 (41.6%)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TV/인터넷(28.1%), 학원(18.3%), 과외(7.8%)와 무응답(4.2%)순으로 나타났다. 학교 수업을 기반으로 영어학습을 하는 학생들이 다른 도구 및 방법보다 높게 나타나긴 하였으나 그 비율이 절반을 넘지 않고 있으며 무응답을 제외한 학교수업 이외의 세 가지 요인(TV/인터넷, 학원, 과외) 의 합친 비율(54.2%) 보다 낮게 나타난 결과는 현재 공교육 영어수업이 학습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학교수업 외의 학습 방법에 비해 크지 않음을 암시한다.

내신영어와 수능영어 중점 집단 별로 분석한 결과 집단 별 영어학습 도구 및 방법의 양상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내신영어에 중점을 둔 학습자들은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학교 수업(58.5%)을 기반으로 영어 학습을 수행하고 있지만 수능영어에 중점을 학습자들은 TV/인터넷(32.4%)과 학원(26.5%)을 학교 수업(25.3%) 보다 선호했다.

또한, 내신 영어 중점 집단 80% 이상이 학교 수업 및 TV/인터넷에 큰 비중을 두고 학원과 과외 쪽의 비중(15.3%)이 상당히 낮았던 것에 비해 수능영어

중점 집단은 모든 영역에 다소 고른 선호도를 나타냈으며 과외와 학원 쪽의 비중이 각각 내신영어 중점 집단에 비해 대략 2배~3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수능영어 중점 집단의 응답자들은 공교육 영어 수업보다는 응답자가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자신에게 맞는 영어학습 방법을 다양하게 선택,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점 집단별로 나타나는 이러한 결과의 양상은 현재 내신영어와 수능영어가 '학교 안 영어'와 '학교 밖 영어' 라는 양분화 된 모습으로 학습자에게 인식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러한 이분화 된 인식이 투영된 영어학습 방법의 전략적 다양성은 응답자가 대학 교양영어 수업에 참석, 접하게 될 영어 학습 컨텐츠 및 교양영어 수업 방식 선택에 있어 교양영어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을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3
내신/수능영어 중점 정도별 사용한 영어 학습 도구 및 방법

		영어 학습 도구(방법)					χ^2 (p)	f	p
		TV/ 인터넷	학교 수업	과외	학원	무응답			
내신영어 (n = 164)	n	39	96	9	16	4	41.658 (.000*)	11.720	0.000
	%	23.8	58.5	5.5	9.8	2.4			
수능영어 (n = 170)	n	55	43	17	45	10			
	%	32.4	25.3	10.0	26.5	5.9			
전체 (n = 334)		94	139	26	61	14			
백분율(%)		28.1	41.6	7.8	18.3	4.2			

*$p < .05$

1. 수능영어 중점 정도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

내신/수능영어 중점 정도별 대학 교양영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을 분석한 결과는 표 4에서 볼 수 있 듯 내신영어와 수능영어 중점 집단 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내신/수능영어 중점 집단 모두 각각 회화(57.3%, 61.2%)를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인식했고 이는 김지은과 최성훈(2019)의 연구에서 영어교육 전공학생들의 교양영어 요구분석의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절반이상이 회화 영역의 교양영어를 확대 하기 원한다는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회화 다음으로는 독해(23.8%, 23.5%) 가 그 뒤를 이었다. 어휘와 문법 영역의 경우 중점 집단 별 문법과 어휘의 순서가 다르게 나타났다. 내신영어의 경우 근소한 차이로 문법(9.8%)이 어휘(8.5%)이 높게 나타났지만 수능영어의 경우 어휘(10.0%)가 문법(4.7%) 두 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앞선 '노

력을 기울였던 영역' 분석 결과에서 내신영어 중점 집단에서는 어휘(17.1%)보다 문법(20.1%)에 더 많이 노력을 기울였고 두 영역 간 차이가 근소한 반면(3.0%), 수능영어 중점집단에서는 문법(13.5%)보다 어휘(21.2%)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두 영역간 다소의 차이가 (7.7%) 나타난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결과는 내신영어와 수능영어 중점 집단 간의 대학 입학 전 노력을 기울였던 실제 경험이 대학 입학 후 영어학습 인식과 관련하여 직/간접적 영향 및 추후 교양영어 수업 선택과 참여, 태도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4
내신/수능영어 중점 정도 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

	중요 영역					X^2 (p)	*f*	*p*
	문법	어휘	독해	회화	쓰기			
내신영어	16	14	39	94	1	3.368 (.498)	0.838	0.502
(*n* = 164) %	9.8	8.5	23.8	57.3	0.6			
수능영어	8	17	40	104	1			
(*n* = 170)%	4.7	10.0	23.5	61.2	0.6			
전체 (명)	24	31	79	198	2			
백분율(%)	7.2	9.3	23.7	59.3	0.6			

*$p < .05$

선택 문항으로 '대학 교양영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영역' 을 고른 이유를 간략하게 기술하라고 요청한 후 기술된 내용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분류,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난 회화와 독해 영역 중심으로 선택 이유를 보고자 한다. 회화를 선택한 학생들의 응답은 '의사소통과 생활' 과 '실용적(도구적) 측면' 의 두 개 상위 영역으로 나눌 수 있었다. 그 중 의사소통은 " 문법보다는 말하고 들을 수 있는 의사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종이와 대화하는 것이 아닌 사람 대 사람으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언어의 주된 목적이고 영어도 언어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주목적이 되어야함", "고등학교처럼 암기 방식이나 수능을 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영어랑 다르게 외국인과 소통해야 하기 때문에" 등의 실제 응답이 나타났다. '생활' 과 관련 해서는 "시험 보다는 일상에서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시험보다는 인생을 준비해야하니까", "실생활에 가장 많이 사용되니까", "실제로 사용해야 하니까" 등의 답변이 나왔다. 응답자들은 대학 환경에 들어 오자마자 영어를 성적과 관련된 과목이 아닌 언어로 인식, 언어의 근본적 목적인 의사소통과 실제 생활에서 사용되는 것에 초점을 두고자 하는 태도를 나타냈다. 이러한 응답은 응답자들이 성적 중심의 영어학습에서 탈피,대학 환경에서는 영어를 통해 타인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곳에서 영어를 구사하는 능력

을 높이는 좀 더 근본적이고 거시적 관점의 영어학습을 원하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실용적(도구적)’ 측면에서는“입시영어에서 벗어나 실용적인 공부를 위해”,“토익 토플 대비” , “독해 쓰기가 부족해도 회화가 된다면 살아가는데 유익” , “취업에도 회화를 원함” , “문제풀이 영어가 아니라 대학에서는 깊은 학문이 필요함” , “외국에 나갈 준비를 위해” , “글로벌 시대 준비를 위해” 등 과 같이 영어를 도구로 이용하여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회화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나타났다. 대학 및 대학 졸업 후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영어의 어학 능력 중 회화가 다양한 실질적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종합해 보면, 응답자들이 회화를 교양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선택한 것은 언어로서 영어의 근본적 필요성과 더불어 사회적 환경(글로벌 사회, 시험, 취업 등) 과 관련된 실용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이를 모두 충족시키는 영역을 회화로 여겼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 다음으로 응답자가 많았던 독해의 경우 ‘기초 영어능력(독해력)’ 측면과 대학의 ‘구체적 수업 환경’ 과 관련된 응답이 나타났다. ‘기초 영어능력으로서 독해 능력’ 은 “해석이 되야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 “읽어야 뭐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 “독해가 기초이기 때문에” , “읽기가 가장 많이 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 “독해가 된다는 것은 문법과 어휘 능력이 있다는 뜻” 등의 응답이 나타났다.

‘대학 수업 환경’과 관련하여서 “논문을 비롯한 서적에서 내용을 파악해야 하므로” , “ 대학서적들의 대다 수가 원서이기 때문에” , “전공 영어를 읽을 수 있어야 함으로”,“해석을 할 줄 알아야 수업을 이해하고 시험을 칠 수 있다” 등의 답변이 나왔다. 학생들의 대학 수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독해 능력의 향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응답은 응답자들이 경험해 왔고, 앞으로 경험하게 될 대학 수업 환경을 포함한 EFL 환경에서 독해 능력이 영어능력의 기초로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학습자들이 잘 인식하고 있음이 답변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즉, 응답자들은 중/고등학교 시절 문제 풀이 중심의 독해의 영역에서 확장되어 대학환경에서는 논문, 전공 서적, 전공 영어 영역의 정보 이해를 위해 좀 더 근본적인 측면에서 독해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정리해 보면,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에 대한 응답을 통해 ‘영어’ 를 외국어로 학습하는 배경이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의 전환되는 시점에서 학습자의 영어에 대한 인식도 극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대학 환경에서 영어 학습을 통해 응답자가 정확하게 성취하고자 목표가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을 본 응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교양영어 수업을 계획 하는데 있어 이 점을 유념해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 신입생의 대학 입학 전형에 따라 내신영어와 수능영어의 중점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이로 인해 다른 영어학습 양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통해 앞으로 신입생 대상의 교양영어 수업이 나가야 구체적인 방향성을 고찰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 구체적으로 영어학습의 양상은 '노력했던 영어학습 영역' 과 '영어학습 방법 및 도구 사용의 양상' 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내신영어와 수능영어 중점 집단별로 노력했던 영어학습 영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내신영어 집단의 절반 이상이 독해 영역에 노력을 기울였고 문법, 어휘, 회화, 쓰기 순으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능영어 중점 집단 역시 독해에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어휘, 문법 순으로 노력을 기울였고 회화와 쓰기에 중점을 두는 응답자 없었다. 영어학습 도구 및 방법의 양상에서도 내신영어와 수능영어 중점 집단 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내신영어 중점 집단의 절반 이상이 학교 수업에 초점을 둔 것에 반해 수능영어 중점 집단은 TV/인터넷를 가장 선호했으며 내신영어 집단에 비해 과외와 학원 영어수업과 같은 사교육 영어학습 방식에도 높은 선호도를 나타냈다. 두 집단 모두 독해 영역에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영어학습 방법 및 도구 사용에 있어 차이를 나타낸 것을 통해 내신영어와 수능영어가 "학교 안 영어" 와 "학교 밖 영어" 라는 이분법적 접근방식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학 교양영어 수업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을 분석한 결과, 두 집단 모두 회화를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독해 영역이 그 뒤를 따랐다. 회화 영역을 선택한 이유는 크게 영어를 이용한 실제 의사소통 능력 을 향상시키고 싶은 '의사소통 측면' 과 다른 영역에서 소정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영어회화 능력을 이용하는 '실용적인 측면' 에서 들고 있었다. 독해 영역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초 영어능력으로서 독해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과 더불어 구체적으로 대학수업 환경이라는 특정한 상황에서 독해 능력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관련된 답변들을 들어 대학 교양영어에서 독해 영역이 중요성을 강조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학습자들은 입시를 대비하여 영어학습 양상의 전략적 다양화를 모색, 실천해 왔으며 독해 영역에 가장 많은 노력을 집중해왔지만 대학에서는 회화가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는 이원화 된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개인별로 선호하는 영어학습 방법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변화된 영어학습 인식을 가진 학습자에게 성급하게 일원화 된 수업방식을 제시하기 보다는 시험중심의 입시영어에서 대학영어로의 자연스러운 전환이 이루어져 학습자의 영어능력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양영어수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실용성 중심/학습자 중심/글로벌 역량 함양 중심의 교양영어수업이 나갈 방향성을 아래와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독해 영역과 관련하여 수업 내용과 수업 목적에서 세분화된 교양영어 수업 개설이 필요하다. 내신/수능영어 두 집단 모두 대학 입학 전 독해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학습했으며 대학에서는 독해를 회화 다음으로 중요한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교양영어는 학습자의 독해 영역에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수업을 고려해야 한다. 먼저, 이원화(수시와 정시)된 입시제도에 따라 각각 내신과 수능영어에 중점을 둔 학습자들을 포용하기 위해 주제 찾기, 빈칸 추론, 내용 추측 등 거시적인 접근과 한 문장 한 문장의 의미와 구조를 파악하는 미시적 접근을 통합한 구체적 독해 수업 구상 계획이 필요하다. 수업 내용 역시 시험문제 풀이가 아닌 다양한 영어 텍스트 속의 정보 이해에 중점을 둔 의사소통 중심의 독해 자료를 채택, 교수하는 것이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많은 정보를 분석, 이해할 수 있는 독해 능력을 높이고, 대학입학 이전과는 달라진 학습자의 영어 학습 인식 수준에 부합하는 조치가 될 것이다(김지은 & 최창훈, 2018).

또한, 영어 텍스트 내용에 있어서 학습자의 영어 수준 및 관심, 흥미를 고려하는 동시에 학습자의 글로벌 역량 강화-기술, 지식, 태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글로벌 이슈를 다루는 내용이 추천된다. 단순 영어 독해력 증가에 그치지 않고 영어를 읽는 과정에서 인지, 비인지, 메타 인지 영역이 함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필수적인 영어 어학 지식 및 다양한 가능성과 의견 및 해결책들이 제시될 수 있는 '이야기 거리가 풍부한 텍스트'가 신중하게 선택되어야 할 것이다.

독해의 목적과 관련되어서는 학습자를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학습자의 전공 공부나 영어인증평가 대비와 같은 학습자 중심의 실용적 목표 달성을 위해 특화된 독해 수업도 요구된다. 대학 신입생은 전공관련 영어원서를 읽고 이해하는 것에 어려움을 가질 수 있기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공 계열별 교양 수준의 ESP(English for Specific Purpose) 독해 특화 수업은 신입생들의 전공지식 습득,향상과 영어학습에 흥미와 동기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김지은 & 최용훈, 2018; Dudley-Evans & St. John, 1998). 그 밖에도 토익, 토플 등의 다양한 영어시험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독해 전용 수업 역시 교양영어 수준에서 개설이 필요하다. 다른 영역과 통합되어 수업의 일부로 독해를 다루기보다는 영어 인증 평가 대비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택과목등의 형식으로 개설된 양질의 독해 전용 수업은 학습자의 미래지향적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학습자의 수업 참여'를 증가시키기 위한 다양한 수업방식의 도입 및 수업 시설의 확충이 요구된다. 학습자들은 대학 입학 전 학교 강의 듣기, 인터넷 수업, 과외처럼 개별적이면서도 일방적으로 지식이 전달되는 방식의 수업에 익숙했다. 교양영어 수업에서는 쌍방향적 소통이 권장되는 학습자 친화적 수업

환경 조성 및 수업 활동 도입이 필요하다. 교수자와 학습자 간,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동, 협력 역량 강화 수업, 프로젝트 활동 수업 등을 적극 활용하고 원어민 교수자와 한국 교수자가 같이 수업을 진행하는 팀티칭 수업이 권장된다.

또한, IT 기기 사용이 일상화 된 현재 학습자를 위해 비대면 수업이나 4차 산업화 시대의 다양한 IT 기반의 학습 활용 수업이 가능한 시설의 도입은 교양영어 수업에 있어 매우 필수적이다. 영어권 학습자나 교수자와 교실에서 실시간으로 소통 가능하도록 설계되거나 학습자 개인 IT 기기에 접속하여 기존 어학 LAP 실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컴퓨터 기반 수업 시설이 교양영어 수업 환경에 설치된다면 학습자가 좀 더 적극적/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설을 기반으로 다양한 수업 활동(메타버스 기반 수업 활동, 플립러닝, 블랜디드 러닝, 원격 팀티칭 등) 들이 개발되어 교수자와 학습자의 원활한 쌍방향 소통 및 글로벌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되는 교육 친화적 환경이 자연스럽게 조성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회화 영역에 관한 학습자의 욕구를 유의미하게 충족 시킬 수 있는 교양영어 수업 개설이 필요하다. 노력했던 영역으로 회화를 선택했던 학습자가 거의 없었던 반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대학에서 회화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것은 입시영어에서 벗어나 대학에서는 실질적으로 영어의 의사소통적 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겠다는 학습자의 의지가 강력하게 피력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의지를 이상적으로 실현될 수 있기 위해 단순히 원어민의 의해 진행되는 회화 수업의 수를 증가시키는 대처는 주먹구구식 일 수 있다. 원어민과 영어로 의사 소통할 수 있는 양질의 기회가 학습자에게 최대한 주어질 수 있도록 수업 참여 인원을 조정하고 대화가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는 학습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는 수업 방식을 고려하는 것에 큰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회화 수업의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기 위해 원어민과 한국인 교수가 함께 진행하는 수업이나 수업 참여자들의 현재 관심사를 반영, 수업 참여도를 높여 영어 발화에 유의미한 도움이 되는 수업 운영을 미리 고안, 개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회화 수업에 사전 경험 및 교수 지식이 있는 원어민과 한국인 교수자를 확보하거나 교수자 연수와 같은 과정들을 통해 회화 수업의 양적 발전에 도움이 되는 장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학습자의 필요 요구를 면밀히 분석하여 학습자가 원하는 회화 영역이 반영 된 수업 모형의 개발도 필요하다. 학습자의 전공 및 관심을 반영한 회화 중심의 특수목적영어(ESP-English for Specific Purpose)수업 개발과 같은 구체적 수업 모형의 개발 노력은 학습자에게 유의미한 회화 수업의 경험을 제공하는 동시에 회화 수업의 안정적인 수요자를 확보하여 수업의 질이 향상되는 것에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대학 환경에서 영어 학습을 하고자 하는 학습자들을 위해 문법과 어

휘 및 쓰기 영역을 선별적으로 선택,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특화 교양영어 프로그램 개설을 고려하는 것도 학생들을 위한 좋은 시도로 보인다.

본 연구를 통해 대학 신입생들의 영어학습 양상이 그들의 상황과 선택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대학 교양영어 수업에서 그들이 바라는 바가 구체적이고 다양한 양상을 나타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측면들이 간과되지 않고 수업 계획 및 개설에 반영되는 것이 앞으로의 교양영어 수업이 지향해야 할 방향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앞에서 언급된 교양영어 수업의 방향성은 대학입학 제도에서 기인된 영어학습 방법의 이원화를 확인하고 그로 인해 야기된 영어학습의 부족한 부분을 인식, 보완, 발전 시키는 동시에 학습자가 원하는 영어 능력 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양영어 수업의 방향성을 고찰한 것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물론, 본 연구가 한 개의 학교를 대상으로 실행되었기에 그 결과를 일반화하거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방향성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향성을 기초로 실제 수업을 실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후속 연구는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교양 영어 수업 질적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고명희. (2010). 대학 실용영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학습자의 필요 욕구 조사. *Foreign Language Education, 17*, 337-359.

고준석. (2014). 대학영어교육의 발전방향에 관한 제언: S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8*(5), 335-366.

권영준. (2016). *고등학교 영어 내신 성적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점수와의 상관관계*.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서울.

김나혜. (2021). 코로나 19로 바뀐 수업이 학생 불만 키워...고교, 대학 모두 자퇴생 증가. *Education Policy News,* Retrieved April 20, 2021, From the World WideWeb: http://www.edupo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75

김미숙. (2016). 고등학생 학습자와 대학생 학습자 요구분석을 통한 대학 교양영어프로그램 개편 및 개발 방향 모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 16*(8), 573-594.

김미숙, 김영미. (2017). 학습자와 교수자의 요구분석을 통한 대학영어 프로그램 커리큘럼 개방 방안 모색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 197-218.

김미혜. (2012). 동국대 경주 캠퍼스 실용영어 교육의 현황과 성과. *한국교양교육학회 자료집*, 399-415.

김상수. (2009). *대학 교양영어교육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교수자와 학습자의 요구분석을 중심으로*.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대구.

김성혜, 임자연. (2013). 대학교양영어 프로그램의 운영현황. *현대영어교육, 14*(2), 263-290.

김수미, 정경은. (2013). 대학신입생의 대학생활적응과 학업적 자기 효능감 향상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효과 연구. *청소년시설환경, 11*(4), 201-210.

김영아. (2021). 글로벌 역량과 영어 학습 동기의 상관관계 연구-H 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콘텐트학회논문지, 21*(3), 730-739.

김영아, 현일선. (2021). 글로벌 역량 제고를 위한 글로벌 역량-교양영어 융합 수업 운영의 효과 연구. *교양교육연구, 15*(1), 135-148.

김지은, 최용훈. (2019). 영어교육전공 대학생의 교양영어 교육에 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8), 565-571.

김헌주, 김경미. (2015). 대학 신입생들의 학교생활만족도와 학업성취도간의 상관관계 분석 사례연구.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26*(6),1283-1293.

김혜경. (2016). 소집단 협동학습을 통한 교양영어 독해수업 방안 연구. *교양교육연구, 10*(4), 209-236.

도태회. (2005). *상태평가와 절대평가에 의한 고교내신 영어성적과 수능 영어성적의 상관관계 및 교사들의 의견조사*. 미출간 석사학위 논문, 부산대학교, 부산.

류미해, 정재은. (2020). 교원양성대학의 언택트(Un-tact) 수업환경에 관한 신입생 인식 조사. *교육발전, 40*(2), 309-329

류숙열, 박혜성. (2016). 대학 신입생 대상 전략 교양 교과 콘텐츠의 팀티칭 운영 효과: 지역대학(중등특수교육과)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12), 302-326.

박영순. (2018). 대학 신입생을 위한 입학 전 동기유발학기 프로그램의 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 269-289.

방영주. (2014). 효율적인 대학 교양영어교육의 방향 및 제언. *현대영어교육, 15*(4), 221-245.

배경진. (2015). 호서대학교 교양영어 운영: 토익과 독해사이. *한국교양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49-258.

성명희, 장형지, 김현진. (2007). 교양영어교육에 관한 학생요구조사. *현대영어교육*, *8*(3), 318-340

성태제. (1998). *교육 연구 방법의 이해*. 서울: 학지사.

손혜숙, 한승우. (2017). 대학 신입생 예비교육 프로그램 설계와 운영 방안 연구. *문화와 융합, 39*, 135-162.

심고은, 김선영, 박민규. (2019). 신입생 적응 지원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K 대학교 신입생 세미나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13*(6), 57-75.

심형섭. (2014). 인문계 고등학생의 영어내신성적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성취도간 상관관계 분석. *영어영문학연구, 56*(2), 113-141.

안동현. (2013). 글로벌 시대 정보 통신 테크놀로지를 통한 영어 교육 방향 모색. *교양교육연구, 7*(4), 501-527.

유경혜. (2010). 국내 주요 대학의 교양영어 교육 현황과 지적된 문제점들. *교양논총, 2* , 5-31.

유슬아, (2011). 미국 대학의 신입생 대상 교육과정 실행 사례 분석. *비교교육연구, 21*(5), 29-57.

이승형, 강기수. (2021).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대학 신입생 프로그램 관련 연구 동향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 765-785.

이연정. (2021). 대학 '신입생 적응 세미나'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인문사회21, 12*(4), 417-428.

이연주, 임경수. (2021). 코로나 19 대응 온라인 멘토링 프로그램을 활용한 대학 신입생 적응 프로그램 사례연구. *교양교육연구, 15*(4), 217-231.

이영경. (2018). 영어학습동기와 영어 학습전략에 관한 연구-내신영어와 수능영어 학습 중점정도를 중심으로. *인문과학논총, 37*(3), 223-257.

이예식, 임홍미. (2005). 교양영어교육의 실태와 개선 방향. *중등교육연구, 53*(3), 257-276.

이인경, 김장회. (2011). 대학 신입생의 학교적응을 위한 교수 멘토링 교육과정의 효과. *상담학연구, 12*(2), 673-691.

이혜원. (2019). 글로벌 역량 교육의 핵심 학습요소와 영역에 대한 질적 메카 분석. *비교교육연구, 29*(4), 1-31.

임정완. (2021).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 대한 영어교육과 학생들의 인식 연구. *영어어문교육, 27*(3), 89-107.

정효정. (2019). 대학 신입생 대상 진로교육 교과목에서 플립러닝 적용 사례.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6), 377-404.

조정순. (2002). 대학 교양영어 교육의 현황과 방향성 탐구. *영어교육, 57*(2), 365-394.

주미란. (2021). 대학 영어와 세계시민의식 관계 연구, *영어어문교육, 27*(3), 129-147.

최경미, 양우석. (2011). 지방소재 중위권 대학의 이공계 신입생을 위한 수준별 영어수업의 운영방식에 대한 사례 연구.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14*(2), 51-59.

최미숙. (2022). 비교과프로그램 모듈화를 통한 역량기반 교양교과목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례연구. *교양교육연구, 16*, 315-337.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5).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학습 방법 안내*, Retrieved April 6, 2022, from the World Wide Web:

https://www.kice.re.kr/boardCnts/fileDown.do?fileSeq=21b717b5dfadbb54223cbc1620d3f431

한미현, 배상목. (2015). 대학입학유형이 대학생활적응과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일개 대학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간호교육학화지, 21*(1), 46-53.

홍성연, 김인수. (2016). 대학의 지원과 자기결정성 요인이 신입생의 대학교육 성과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3*(12), 453-479.

황요한, 고보라. (2019). 블랜디드 러닝이 토익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대학 신입생 교양영어 수업 분석을 통해. *영어교과교육, 18*(4), 233-248.

Byram, M. (1997). *Teaching and assessing 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 Clevedon, UK: Multilingual Matters.

Dudley-Evans, T., & St. John, M. J. (1998). *Developments in ESP: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Hunter, B., White, G. P., & Godbey, G. C. (2006). What does it mean to be globally competent?. *Journal of Studies in International education*, *10*(3), 267-285.

Tawil, S. (2013). Education for 'Global Citizenship'; A framework for discussion. *UNESCO Education Research and Foresight, 7*, 1-8.

예시언어(Examples in): English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 Tertiary

이영경 (강사)
한경대학교 브라이트컬리지
17579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 327
E-mail:igone@nate.com

Received in April 25, 2022
Reviewed in May 30, 2022
Revised version received in June 7, 2022